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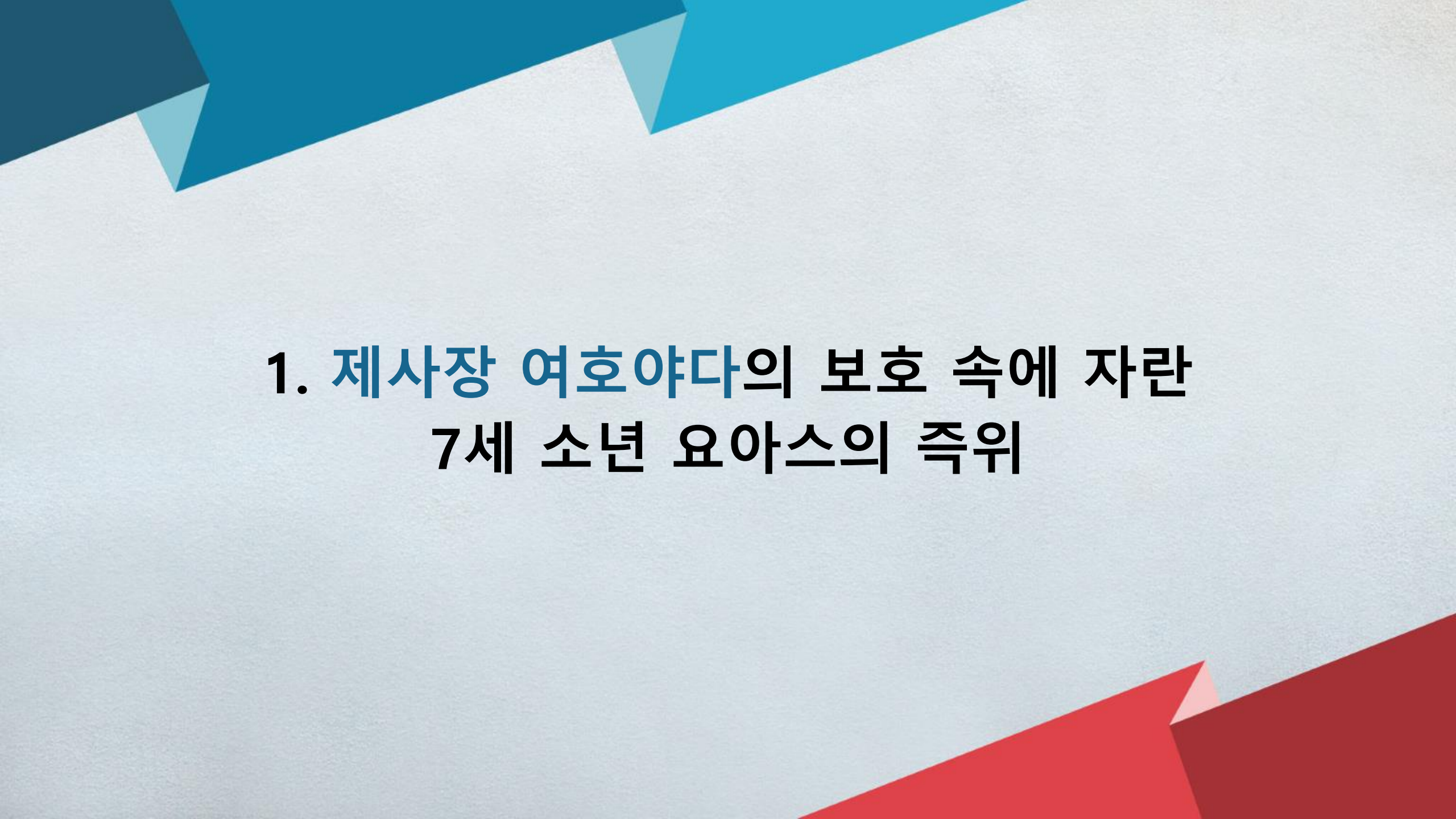
이재천 목사의 <역대하: 회복과 축복을 여는 황금 열쇠> 7강

정함이 없는 자

(역대하 24장 1~27절)

오늘의 포인트

1. 태생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요아스가 주변 압력에 휘둘러 무너져 가는 모습 살펴보기
2.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 휘청이는 요아스에게 반역과 징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 비추어 보기



**1.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속에 자란
7세 소년 요아스의 즉위**

1)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천운의 소년

- (1) 아달랴 가문과 달리 브엘세바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 (1절)
- (2) 가문 사멸의 위기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지와 용기로 생존 (대하 22:11~12)
- (3)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세력을 제거하고 즉위시킴
(대하 23:10~11, 13~14)
- (4) 7세에 즉위하여 40년을 통치 (1절)
- (5)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진
순응적인 사람 (2~3절; 왕하 12:2~3)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2장 2~3절

2) 장성하자 여호와와의 전 보수 명령을 내리는 요아스

- (1)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왕으로 옹립된 곳
- (2)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전 보수와 운영에 책임이 있었음
 - 고대 근동에서 성의 통치자는 신전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음
 - 왕은 군사적 성공 못지않게 신전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했음
- (3) 아달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성물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됨 (7절)
- (4) 성전 보수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성막을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정한 세'를 거두라 명함 (5~6절; 출 30:13~16)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3~16절

2) 장성하자 여호와와의 전 보수 명령을 내리는 요아스

**(5)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왕하 12:4)
⇒ 속건제와 속죄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레위기 27장 2~7절

3) 지체되는 왕의 명령과 긴장

(1) 왕 23년에 이르도록 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5절; 왕하 12:5~6)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이십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열왕기하 12장 5~6절

3) 지체되는 왕의 명령과 긴장

**(2)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왕하 12:7)**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열왕기하 12장 7절

4) 요아스의 숙원 사업인 성전 보수 작업 완료

(1) 제사장들과 타협하여 문제 해결 (왕하 12:8, 16)

- 열왕기하 12장 8, 16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2) 여호와의 전 문밖에 성전을 위한 헌금함을 따로 설치함 (8~9절)

(3) 방백들과 백성이 기뻐함 (10절)

(4) 여호야다와 힘을 합하여 성전 보수 공사와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
번제가 규례대로 드리지도록 함 (11~14절)

2. 심약하여 흔들리는 요아스

1)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

- (1)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적 후견인의 죽음 (15절)
- (2) 다윗 성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 명예롭게 추모함 (16절)
 - ⇒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대로 행하였고 왕의 사위이기도 했음

2) 정함이 없는 자 요아스

- (1) 여호야다 사후 유다 방백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림 (17절)
- (2) 130세까지 장기 집권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뤄진 제사장 세력에 대한 반대급부
- (3) 성전 보수를 위한 세금 징수 과정에서 왕과 제사장 계층의 미묘한 정치적 긴장 (왕하 12:5~7)
- (4) 시련이 오면 바람에 밀려 출렁이듯 '정함이 없는 자' (약 1:6~8)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8절

3) 반역의 패러다임에 빠져 배은망덕한 길로 들어서는 요아스

- (1) 여호와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겨 여호와와의 진노를 샀음
(18절; 약 1:6~8)
- (2)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중대한 경고를 듣지 않음 (19~27절)
- (3)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경고와 저주 (20절)
- (4) 음모를 꾸며 요아스의 명령 하에
스가랴를 여호와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죽임 (21절)

4)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멸망하는 요아스

- (1)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탄원 (22절)
- (2)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후, 아람 왕 하사엘이 적은 수로 침략했으나 하나님이 수가 더 많은 유다 군대를 아람에게 넘기심 (23a, 24절)
- (3) 블레셋 땅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쳐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으로 보냄 (23b절; 왕하 12:17~18)

그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열왕기하 12장 17~18절

4)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멸망하는 요아스

- (4) 스가랴의 살해에 대한 앙갚음으로 신복들이 공모하여
아람 군대에게 부상당한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임 (25절; 왕하 12:20)
-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 (5) 제사장 여호야다와 달리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음 (25~26절)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정함이 없는 신앙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든지 패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자각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 정립을 위해 훈련해야 한다
2.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의 배은망덕한 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 늘 자신을 성찰하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궤적(자취)을 만들어가야 한다